

## 불패의 군력은 조국통일위업수행의 담보

김 영 실

불패의 군력은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앞당길수 있게 하는 담보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강력한 군력이 안받침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언제 가도 조국을 통일할수 없습니다.》

(《김정일선집》증보판 제22권 226페이지)

불패의 군력이 조국통일위업수행의 담보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전쟁책동,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킬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불패의 군력은 우선 미제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완전히 종식시킬수 있게 한다.

미제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은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새 전쟁도발책동에 근원을 두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의 《보호자》로 자처하면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을 남조선의 이익을 위한것으로 합리화하려고 하고있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년례적으로 감행하여온 《련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합동군사연습, 《을지 포커스렌즈》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을 노린 대규모의 핵시험전쟁, 핵선제공격연습으로서 조선반도의 군사적대결상태를 격화시키고 정세를 전쟁발발의 위험한 국면으로 몰아가군 하였다.

미제는 핵문제의 《평화적해결》이니, 《외교적해결》이니 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있으며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기도를 실현할수 없게 되자 비렬한 《인권》모략소동에 매달리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미제의 대조선침략책동을 완전히 종식시키는것은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 우리 민족을 분렬시킨 장본인이며 통일의 기본방해자인 미제의 북침핵전쟁연습소동과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끝장낼 때에만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긴장을 해소하고 공고한 평화를 실현할수 있으며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갈수 있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마련된 우리 공화국의 불패의 군력은 미제의 침략으로부터 전민족을 보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만일 불패의 군력을 마련하지 못했더라면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 민족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미제의 책동을 짓부실수 없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온 겨레는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애족적인 정치로 찬양하고있으며 선군정치에 의하여 강해진 우리 공화국의 군력을 민족의 가장 억센 기둥으로 여기고있다.

미제에 의하여 이 땅위에 드리운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불패의 군력은 민족의 삶의 터전인 조국강토를 전쟁의 참화로부터 보호할수 있게 하며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수 있게 한다.

참으로 불패의 군력이야말로 미제의 침략과 전쟁책동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평화통일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불패의 군력은 또한 미제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킬수 있게 한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은 우리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이다. 외세에 의하여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졌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으로 하여 오늘까지 나라와 민족이 통일되지 못하고있다. 다른 민족을 분렬하여 통치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수법이다.

미제는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고 지배하려는 야망을 변함없이 추구하고있다.

조선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미제는 우리 민족내부에 반목과 불화를 조장하고 남조선피뢰역적패당을 동족과의 대결에로 부추기면서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꾀하고있으며 남조선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고 끊임없는 군사연습과 무력증강으로 정세를 긴장시키고있다.

조국통일에 대한 외세의 간섭은 조선민족의 자주성에 대한 횡포하고도 악랄한 침해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그 어떤 국제관계문제가 아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이며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전통을 가지고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인민이 민족적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민족내부문제이다. 그러므로 외부세력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간섭할 아무런 리유도 구실도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

미제는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선사하려 하지 않는다.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대신하여 미제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찾아줄수 없다. 민족의 자주권을 찾고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 민족만이 할수 있다.

불패의 군력은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남조선이 미제의 예속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우리 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미제는 남조선을 타고앉아 침략과 간섭을 꺼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남의 집에 기여든 강도에게는 몽둥이가 제격이듯이 남의 나라 땅의 절반을 강탈한 제국주의강도들은 오직 민족의 강력한 자주적힘, 강한 군력을 핵으로 하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쫓는 길밖에 다른 방도는 없다.

선군에 의하여 마련된 우리 공화국의 강력한 총대는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 미제의 그 어떤 간섭도 허용하지 않으며 외세의존을 반대배격하고 조국통일운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불패의 군력에 의거하여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미제의 간섭을 철저히 반대배격하고 조국통일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으며 이 땅위에 자주통일의 밝은 앞날을 펼쳐놓을수 있게 될것이다.

불패의 군력이 조국통일위업수행의 담보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남조선피뢰역적패당의 무모한 군사적도발과 반통일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부실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오늘 조국통일이 실현되지 못하고있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남조선피뢰역적패당의 무모한 전쟁도발광기와 동족대결정책에 있다.

남조선피뢰역적패당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실 때에만 갈라진 민족의 혈맥이 다시 이어질수 있다. 만약 남조선피뢰역적패당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시지 않는다면 조선반도에 긴장상태가 계속 격화되고 동족상쟁의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현시기 남조선피퇴역적패당의 반통일책동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오늘 조국통일의 기운은 전례없이 고조되고있으나 북과 남사이의 관계는 남조선피퇴역적패당의 반통일책동으로 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긴장하고 첨예하다.

남조선호전광들은 우리의 정당한 조치들을 《도발》과 《위협》으로 걸고들면서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박에 뛰어들고있으며 우리에게 대한 극도의 반감과 적대의식을 고취하고있다. 남조선피퇴역적패당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심리방송들과 빼라살포를 비롯하여 상대방을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적대행위들을 감행하고있으며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을 《리적》과 《중북》으로 몰아 부당하게 박해하고 탄압하면서 북남사이의 대결을 격화시킬뿐아니라 동족을 향하여 총부리를 겨누고 군사적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다.

그리하여 새 세기와 더불어 온 겨레에게 통일의 희망과 락관을 안겨준 민족공동의 소중한 전취물들이 깡그리 몰살당하고있으며 북남관계는 언제 어디서 무장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며 그것이 전쟁으로 번져지는것을 막을수 없는 험악한 지경으로 치닫고있다. 민족의 운명도 나라의 통일도 안중에 없는 남조선피퇴역적패당은 저들의 권력지반이 밀뿌리채 뒤흔들리게 되자 출로를 북남사이의 긴장격화와 대결에서 찾으려고 하면서 미제와 야합하여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전례없이 강화하고있다.

침미사대와 외세의존에 환장이 된 피퇴패당은 북침전쟁도발을 꾀하는 미국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그의 하수인, 돌격대로 나서고있다. 사대매국적인 남조선피퇴역적패당은 우리 민족, 우리 강토를 둘로 갈라놓은 미제와 야합하여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을 운운하며 북침을 가상한 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을 공공연히 벌리면서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으로 끌어가고있으며 북침을 위한 군사적도발에 광기를 부리고 지어 《참수작전》이니 뭐니 하면서 발광하고있다.

남조선피퇴역적패당이 북침전쟁도발책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는것은 미국을 할애비처럼 믿고 날뛰는 가소로운 망동이다.

남조선피퇴역적패당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전환적인 국면을 열어가기 위한 근본담보는 불패의 군력을 마련하는데 있다.

선군의 기치밑에 마련된 우리 공화국의 강한 군사력은 남조선피퇴역적패당의 반공화국, 반통일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심으로써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고 민족의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게 할수 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군력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있으며 그 어떤 적들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군사강국으로 위용펼치면서 오늘과 같이 복잡하고 첨예한 정세속에서도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감으로써 강력한 군력으로 조국의 존엄과 인민의 행복을 지키며 이 땅우에 기어이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할것이다.